

## 1970년대 잡지 『여학생』의 소녀 담론과 만화\*

—강요된 모범과 만들어진 명랑

김소원\*\*

1. 서론
2. 『여학생』의 소녀 재현
  - 2-1. 체제 순응적 여학생 교육
  - 2-2. 순결한 소녀에서 불량소녀까지
  - 2-3. 긍정과 부정이 충돌하는 소녀상
3. 만화가 그린 명랑소녀
  - 3-1. 완벽한 가정의 조건과 딸의 역할 <푸른 지대>
  - 3-2. 현실에는 없는 그들 <미니 行進曲>
4. 결론

### 국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만화 연구에서 소외되었던 1970년대 순정만화를 조명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1970년대의 잡지인 『여학생』의 기사와 연재만화를 분석하고 당시의 이상적인 소녀상을 고찰한다. 순정만화는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 단행본 순정만화 분석만으로는 이러한 간극에 대해 설명되지 않는다. 만화 검열이 만화 전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지만 다른 장르의 만화와 비교했을 때 1970년대 순정만화의 정체는 지나치다. 순정만화와 함께 소녀를 대상으로

\* 이 논문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만화포럼 자료집 『만화포럼 칸 2020』에 실린 발제문 〈1970년대 『여학생』의 소녀 담론과 만화〉(발표 일자: 2020년 7월 29일)를 대폭 수정, 보완한 것임.

\*\*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강사

하는 대표적인 대중매체였던 잡지 연구를 통해 순정만화 변화의 원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잡지의 기사는 그 잡지의 편집방침과 특징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 시대의 가치관과 이념을 반영한다. 잡지에 실린 만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특히 잡지 만화는 검열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다. 본 논문에서는 1970년대 소녀잡지의 기사와 만화가 당시의 소녀상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여학생』의 특집 기사와 만화를 통해 분석했다. 『여학생』에 연재된 만화 중에서 엄희자의 〈푸른 지대〉와 방영진의 〈미니 행진곡〉을 살펴보았다. 〈푸른 지대〉와 〈미니 행진곡〉 모두 『여학생』의 기사에서 강조한 이상적인 소녀상을 보여준다. 〈푸른 지대〉는 가정 안의 성실하고 순종적인 딸의 모습을, 〈미니 행진곡〉은 명랑하고 밝은 소녀의 모습을 그린다. 연구를 통해 1970년대 잡지는 사회에 순응하면서 화목한 가정을 돕는 소녀를 이상적인 소녀로 평가했다는 것 그리고, 잡지에서 끊임없이 주장했던 이상적인 소녀상은 순정만화의 검열과 창작의 기준이 되어 많은 작품의 내용과 표현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970년대는 만화 검열과 합동 출판사의 독과점 전횡으로 연구사적 의미에서 그 중요성이 희석된 시기이다. 검열의 틀에서 표현의 한계가 명확했고 그 결과 양질의 작품도 많지 않아 1970년대 한국만화 연구는 많은 부분이 공백으로 남아 있다. 본 연구는 1970년대 만화 연구의 공백을 채우는 데에 의미가 있다.

(주제어: 1970년대 만화, 소녀, 『여학생』, 순정만화, 1970년대 잡지, 잡지 만화, 여학생 잡지, 소녀 표상, 여학생 교육, 이상적 소녀)

## 1. 서론

1970년대는 한국만화의 암흑기로 기록된다. 이 시기는 만화 검열과 합동 출판사의 독과점 전횡으로 연구사적 의미에서 그 중요성이 희석된 시기이다. 표면적으로나마 자율에 맡겼던 만화 심의가 1968년 문화공보부 산하 한국 아동만화 윤리위원회로 이관되었고 만화의 사전심의가 시작된다. 작품의 내용은 물론 분량에 대해서까지 규제가 생기면서 획일화된 교훈적 내용과 전체 세 권을 넘지 않는 짧은 분량의 만화만이 양산되던 시기였다.<sup>1)</sup> 1967년 여러 출판사가 통합해 출범한 합동 출판은 만화출판 시장을 거의 독점했다. 1957년 만화 총판인 서울 총판이 설립되면서 만화 유통체계가 정비되고 만화방으로 유통되는 만화의 양이 급증하면서 순정, 스포츠, 탐정, 명랑, SF, 시대물 등 다양한 장르가 생겨났다. 비록 한 권의 분량이 많지는 않았지만 열 권이 넘는 장편 만화가 창작되던 1960년대의 활기는 1970년대가 되면 거의 사라진다. 1970년대 한국의 만화는 명랑함과 건전함을 바탕으로 존재해야만 했다. 검열의 틀에서 표현의 한계가 명확했고 그 결과 양질의 작품도 많지 않아 1970년대 만화 연구는 많은 부분이 공백으로 남아 있다. 순정만화 연구는 대체로 통사적 연구로 존재한다. 박인하의 『순정만화 맛있게 읽기: 누가 캔디를 모함했나』가 2000년 발행되어 오랫동안 많은 순정만화 연구자가 참고하는 서적이었다. 그리고 2021년 출간된 필자의 『시대가 그려낸 소녀: 한일 순정만화의 역사』는 순정만화의 근원이 되는 소녀문화와 소녀잡지까지 연구의 폭을 넓혔다. 그러나 이들 연구도 1970년대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작품 분석이나 작가론은 주로 1980년대 중반 이후

1) 박인하·김낙호, 『한국현대만화사 1945~2009』, 두보CMC, 2010, 92쪽.

의 이른바 황금기 순정만화에 집중되어 있으며 1960년대의 초기 순정만화 연구가 소수 존재한다. 논문 검색사이트에서 '순정만화'를 주제로 검색되는 논문은 25편 정도에 그친다. 본 연구는 우선 1970년대 만화 연구의 공백을 채우는 데에 의미가 있다. 단행본 만화는 원고의 사전 검열이라는 강한 규제를 받았지만, 잡지에 연재되는 만화는 검열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다. 만화에서 재현되는 인물의 이미지나 특징, 서사는 그 시대상을 투영하며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를 담고 있다. 잡지를 기사를 통해 당시의 사회상과 시대상을 파악할 수 있으며 잡지에 실린 만화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다. 1970년대 말 어린이와 소년, 소녀를 대상으로 하는 잡지에 연재되는 장편 만화가 증가했고 이는 1980년대 만화 부흥과 전혀 무관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만화 연구에서 소외되었던 1970년대 만화가 당시의 사회와 소녀상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잡지 『여학생』의 장편 연재만화 중에서 엄희자의 〈푸른 지대〉와 방영진의 〈미니 행진곡〉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만화 장르 중에서도 순정만화는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 권선징악의 플롯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판타지적 공간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거나 주인공에게 신비한 힘이 부여되는 등의 변주가 더해졌던 1960년대 순정만화<sup>2)</sup>는 1970년대가 되면 의외성이나 화려한 변주는 사라지고 평범한 주인공과 도덕적인 결말만 남는다. 단행본으로 나온 순정만화에 대한 분석만으로는 이러한 간극에 대해 설명이 되지 않는다. 만화 검열이 만화 전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지만 다른 장르의 만화와 비교했을 때 1970년대 순정만화의 정체는 지나치다. 순정만화와 함께 소녀

2) 1960년대 후반의 순정만화는 대부분 권선징악적 플롯을 기본으로 하지만 선행의 보답으로 마법의 힘을 얻거나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환상성을 가진 세계가 배경이 되는 등 판타지 장르의 특징이 결합한 작품이 많았다. (김소원, 『시대가 그려낸 소녀: 한·일 순정만화의 역사』, 소명출판, 2021, 122-130쪽.)

를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대중매체였던 잡지 연구를 통해 1970년대 순정만화 침체의 원인에 대해 더욱 선명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학생』은 1965년 11월 십 대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가 없었던 시기 유일한 여학생 잡지<sup>3)</sup>로 창간되었고 1990년 11월 재정난으로 폐간된다. 『여학생』은 400쪽 정도의 월간지로 다양한 투고란을 통해 독자들의 참여를 독려했고 여고생 작가의 등용문이 되기도 했다. 소녀들의 교양 잡지로 탄생한 『여학생』에는 독자 계몽을 위한 수기와 칼럼, 다양한 기사와 문학작품 그리고 매호 3~4편의 만화가 실렸다. 잡지의 기사는 그 잡지의 편집방침과 특징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 시대의 가치관과 이념을 반영한다. 『여학생』에 실린 여러 기사와 칼럼에서는 당시의 사회가 요구하는 소녀상을 엿볼 수 있다. 1970년대 『여학생』 기사에서 그려진 여학생의 이미지는 매우 극단적이다. 순수하며 순종적이고 얌전한 소녀가 있는가 하면 부모에게 반항하고 가출을 감행하고 결국 타락하는 소녀가 공존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의 기사를 통해 1970년대 소녀 담론을 파악하고 『여학생』에 연재된 만화가 당시의 소녀상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분석한다. 그리고 1960년대 순정만화와 『여학생』의 연재만화를 비교하고 만화에서 재현되는 소녀상이 어떻게 변화했으며 그러한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고찰한다.

---

3) 『여학생』 이후 1976년에는 『여고 시대』가, 1980년에는 『소녀시대』가 창간되면서 여학생 잡지의 종류가 늘어난다.

## 2. 『여학생』의 소녀 재현

### 2-1. 체제 순응적 여학생 교육

『여학생』은 1965년 11월 여학생사에서 창간한 잡지이다. 청소년 잡지 중 남학생을 주요 독자로 하는 『학원』이 1952년 11월 창간된 것과 비교하면 다소 늦은 시기에 등장했는데 이는 여학생의 취학률이 남학생들보다 낮았던 것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여성들의 경우 초급학교 취학률은 1945년 독립 당시에는 64%에 지나지 않았으나 3년 후 74.8%로 증가했고 한국전쟁 이후인 1959년에는 96.4%의 취학률을 보인다. 이 시기 전체 학생에서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44.5%로 남녀 학생이 거의 같은 비율이 된다.<sup>4)</sup> 중등교육을 받는 여학생은 해방 이후 급증해서 1945년부터 1962년 사이 9.2배 증가한다. 남자들이 일찍부터 공교육의 혜택을 받은 것과 달리 여자가 중등교육 이상의 교육을 보편적으로 받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렸다.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는 독자가 될 여학생의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만들어질 수 있었다. 여학생의 수가 증가하고 그들의 취향과 관심사를 반영한 읽을거리가 필요해지면서 전문 잡지가 등장한 것이다. 당시의 청소년 잡지는 국가적 가치를 충실히 따른다. 『여학생』은 여학생들의 학교생활에서 교양, 진로교육은 물론 여가, 취미 등 생활 전반을 통해 시민적 자질을 계도하는 잡지로 기획되었다.<sup>5)</sup> 교양 잡지를 표방한 『여학생』의 정체성은 잡지 창간사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4)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편, 『한국 교육사』, 교육과학사, 1997, 298쪽.

5) 나윤경, 『60~70년대 개발국가 시대의 학생잡지를 통해서 본 10대 여학생 주체 형성과 관련한 담론분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56호,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8, 331쪽.

(전략) 교양과 인격과 학문을 겸비한 좋은 인간성을 배양하고 남을 존경할 줄 알고 남과 협력하여 항상 겸손하고 예의가 바르고 진실한 생활을 영위(營爲)할 수 있는 인격을 배양하는 것이 종자를 위한 기름진 땅에 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소망일진데 이 중요한 시기에 기틀을 잘 잡아 놓아야 할 것입니다. 월간지(月刊誌) 《女學生》을 창간함에 있어 이 교양지가 회의에 빠진 우리 여학생들에게 꿈이 되고 청량제가 될 수 있기를 빌며 또한 여러분들이 여성으로서의 교양을 쌓고 실력을 길러 사회의 기초가 되고 훌륭한 한국의 여성들이 되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창간사를 대신합니다. (후략)<sup>6)</sup>

이처럼 창간사에서 『여학생』은 여성 교육과 교양을 위한 잡지이며 독자들이 타인을 존중하고 겸손하며 예의 바른 학생, 그리고 교양을 갖춘 훌륭한 여성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창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소년, 특히 여학생 교육과 교양을 위해 발간했다는 잡지의 정체성은 1970년대 초까지 충실하게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1960, 70년대 잡지의 목차에 나타난 단어의 빈도수를 정리하면 1) 여학생과 생활 관련한 용어, 2) 문학 관련 용어, 3) 소녀, 10대, 4) 사랑, 이성 교제, 5) 학교와 우정, 6) 건강, 7) 가족, 어머니 순이다.<sup>7)</sup> 남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 『학원』이 국가재건을 위한 일꾼으로의 청소년 교육을 목적으로 진취적인 태도로 사회의 발전에 앞서는 청소년상을 제시한 것과는 사뭇 다르다.<sup>8)</sup> 1968년 국민교육헌장이 공포된 이후 청소년 교육은 미래의 국민을 양성하는 국가 체제 유지의 수단으로 이용된다.<sup>9)</sup> 만화와

6) 박기세, 〈創刊에 즈음하여〉, 『여학생』 창간호, 여학생사, 1965, 45쪽.

7) 이선옥, 『196, 70년대 잡지 『여학생』 특집 연구—감정의 재배치와 국민 만들기』, 『여성문학연구』 제4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 299-300쪽.

8) 나윤경, 『60~70년대 개발국가 시대의 학생 잡지를 통해서 본 10대 여학생 주체형성과 관련한 담론분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56호,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8, 333쪽.

9) 나윤경, 『60~70년대 개발국가 시대의 학생 잡지를 통해서 본 10대 여학생 주체형성과

기사, 문학, 칼럼 등이 실린 『학원』도 『여학생』과 비슷한 구성으로 만들어졌지만 〈세계 사상가 열전〉, 〈해외 사건〉, 〈국외 동향〉 등 넓은 시야와 진취적인 사고를 제시하는 읽을거리들이 많았다. 스포츠 선수나 과학자의 인터뷰와 소개 글도 같은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 특히 『학원』이 『여학생』과 구분되는 지점은 〈과학의 신비〉, 〈과학 소설〉, 〈과학 기사〉, 〈사이언스 토픽〉 등의 과학 관련 소설과 기사였다. 『여학생』에서는 ‘과학’과 연관된 기사나 소설을 찾을 수 없다. 청소년 잡지의 과학 기사는 산업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국가의 과학주의 이념을 보여주는 것이다.<sup>10)</sup>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 프로젝트에서 여성은 소외되어 있었다. 진취적인 미래 시민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소년 잡지와 달리 『여학생』은 여성의 성역할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인 논조를 가지고 있었고 여성의 순결과 순종을 강요한다.

1970년부터 1979년까지 『여학생』의 특집 기사를 따로 살펴보면 가장 많이 실린 기사는 이상적인 소녀상을 제시하는 기사이다. 1970년부터 1979년까지 발간된 『여학생』 중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고 목차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총 114권이다. 이 중 매월 하나씩 구성된 특집 기사를 정리해보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올바른 소녀상에 관한 기사와 칼럼이다. 이들 칼럼은 여학생의 역할에 대한 조언, 인생의 방향 제시, 여학생에게 귀감이 되는 여성명사와 위인 소개, 여학생이 갖추어야 할 덕목 소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독자들에게 모범적인 여학생상을 제시한다. 이러한 유형의 기사는 총 40회로 전체 특집 기사의 약 30%에 이른다. 학교생활과 관련한 것으로 우정, 교우 관계 등에 관한 기사가 10회,

---

관련한 담론분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56호,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8, 327-328쪽.  
10) 이선옥, 『1960년대 과학주의 담론의 신체화—잡지 『여학생』에 나타난 소녀와 사춘기』, 『여성문학연구』 제4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227쪽.

장래희망, 졸업 후 진로와 취업, 대학진학과 관련한 기사가 10회로 두 번째로 많았다. 그리고 가정 내에서 딸의 역할을 강조한 기사가 총 8회로 효도, 부모님과의 관계 등에 대해 다뤘다. 그리고 여학생 수기가 6회 실렸는데 수기들은 주로 가난과 불의의 사고 등 시련을 극복한 여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다음은 미용과 건강 관련 기사가 6회, 이성 교제 4회, 가출 소녀, 청소년의 탈선 관련 기사가 4회, 과외공부, 학습 관련 기사가 3회 실렸다. 특집 기사는 흥미 위주의 기사보다는 ‘교양을 전제한 경우가 훨씬 많았지만, 그 이외의 기사로 적지 않은 지면을 미용체조, 피부, 외모 관리 등에 할애하고 있고 가출과 순결을 주제로 하는 기사도 자주 등장한다. 가출이 소녀를 위협에 노출시키고 그 결과 순결을 더럽힌 소녀는 타락한다는 기사가 꽤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1970년대 초에는 시리즈로 <사건 여학생>이라는 기사가 연재되었고 ‘순결’을 제목에 넣은 기사가 1년에 3~4차례 이상 꾸준히 게재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기사들의 서사가 꽤 자극적이라는 데에 있다. 이에 관해 선행연구에서는 1970년대는 에로티시즘의 상업문화가 지배문화로 등장했고 타락한 소녀는 에로티시즘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사회적 수치심으로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고 분석한다.<sup>11)</sup> 이 시기는 소녀를 포함해 국가가 국민에 대한 규율을 강제했던 시기이고 소녀들에 대한 관리와 규율은 순결 이데올로기로 포장되었다. 즉 규율에서 벗어난 소녀는 반드시 타락한다는 논리인 것이다. 이는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 구성원은 그 사회의 수치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걸 의미한다. 소녀가 순종해야 할 대상은 가부장적 사회의 남성들이지만 이는 곧 국가이고 사회인 것이다.

11) 이선옥, 『196, 70년대 잡지 『여학생』 특집 연구—감정의 재배치와 국민 만들기』, 『여성문학연구』 제4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 309쪽.

## 2-2. 순결한 소녀에서 불량소녀까지

창간호 특집 기사로 “한국의 소녀상”을 실었던 만큼 『여학생』은 이상적인 소녀상, 모범적인 여학생 담론을 형성하고 독자들을 계몽하는 데에 역점을 둔다. 이러한 교양 잡지의 특징은 1960~70년대에 선명하게 드러나지만, 점차 컬러 화보가 증가하고 1970년대 말에는 연예인 기사가 중요하게 다뤄지며 상업화한다.<sup>12)</sup> 1970년대 『여학생』 기사에서 보여주는 소녀에 대한 시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사회가 인정하는 ‘이상적인 소녀’, 두 번째가 가정 안의 ‘명랑소녀’, 세 번째는 가정 밖의 ‘불량소녀’이다. 이러한 불량소녀 담론과 수치심은 당시의 통제적인 국민 만들기와 연결되어 있다. 1960년대가 명랑사회의 표상으로 명랑한 소녀를 이상화했다면 1970년대는 강압적 계몽과 규율로 이상적 소녀상을 제시한 시기이다.<sup>13)</sup> 이상적 소녀는 소녀들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소녀에게 요구하는 소녀상이다. 『여학생』에 실린 많은 기사는 독자들이 이상적인 소녀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인 소녀상은 어디까지나 사회, 국가, 학교 그리고 남성이 원하는 소녀상이다. 대중매체는 소녀들은 마땅히 그러한 소녀가 되고 여성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반복한다. 이러한 소녀 담론은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그중 하나가 ‘현모양처 담론’이다. 이상적인 소녀는 곧 미래의 현모양처로 그려지는데 1971년 7월호 기사인 <현모양처가 되는 소양은 여학교 때 만들어진

12) 1984년부터는 “해외 팝스타 초대형 컬러앨범”(1984년 9월), “스타 컬러 브로마이드”(1984년 10월)와 같이 연예인의 화보를 부록으로 제공하면서 ‘교양지’에서 ‘대중·오락지’의 성격이 강해진다.

13) 이선옥, 『196, 70년대 잡지 『여학생』 특집 연구—감정의 재배치와 국민 만들기』, 『여성문학연구』 제4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 311-314쪽.

다)를 보면, “지나치게 똑똑하면 시집가서 과부 돼”, “여학교 때 구두쇠는 시집가서 가난뱅이”, “여학교 때 극성파는 시집가서 남편부양”, “허영심 많으면 결혼했다가 기생 돼”, “공부는 못해야 잘 산다”라는 소재목이 이어진다.<sup>14)</sup>

이에 대한 어떤 정당한 근거나 논리는 생략된 채 협소한 시각의 경험담이 뒷받침될 뿐이다. 이상적인 소녀란 주체로 존재하기보다는 좋은 남자를 만나고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한 객체로 존재한다는 시각은 지속해서 드러난다. 1972년 1월호의 새해 특집 기사 〈특집 새해를 새로운 각오와 설계로—여자의 꿈을 살리는 길〉을 보면, 여성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여성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시각이 드러난다. “여성은 인류의 풍요한 꿈을 키우는 대지이다. 아무리 세태가 바뀌어도 여성의 여자다움만은 변할 수 없다”라거나 “여성의 무한한 가능성을 구현한 신사임당”이라는 언급도 있고 이어서 여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자다워야”<sup>15)</sup>한다는 주장을 한다.

편집부가 구성하거나 명사 혹은 교사, 대학교수 등이 집필한 기사뿐 아니라 연예인, 운동선수, 만화가 등 유명인이나 직장인, 대학생 등 보통 사람들의 인터뷰를 실은 기사에서도 당시의 이상적인 여성상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1976년 5월호 기사인 〈남성들이 좋아하는 여성상〉을 보면, 자신들이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여성에 대해 다양한 직업의 남성들이 짧은 분량의 글로 피력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여성에 대한 이미지는 대체로 매우 보수적이고 전통적이다. 몇 가지를 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4) 〈현모양처가 되는 소양은 여학교 때 만들어진다〉, 『여학생』 제7권 7호, 여학생사, 1971년 7월, 354-361쪽.

15) 〈특집 새해를 새로운 각오와 설계로—여자의 꿈을 살리는 길〉, 『여학생』 제8권 1호, 여학생사, 1972년 1월, 100-102쪽.

“양파 같은 여자”

“적당히 수다스런 여자”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구원한다”

“복종할 줄 알고 참고 견딜 줄 알고”

“여성으로서 갖춘 교양 취미를 두루 갖춘 여자”

“지나치게 뜨거운 정열을 가지면 자칫 부서지기 쉽다. 뜨거운 것은 남자여야 한다.”

“현명한 현대 여성이라면 똑똑하지만, 남자 앞에서 바보가 될 줄 아는 지혜를 터득해야 하리라”

“자기 발산적인 여자보다는 차라리 무표정한 여자가 더 은근한 동양적인 미가 있어 보인다.”<sup>16)</sup>

성인 남성들이 바라는 여성상뿐 아니라 이상적인 소녀상도 별반 다르지 않다. 1977년 4월호 특집 기사 〈특집 우리가 바라는 소녀상〉은 『여학생』이 보여주는 소녀 담론을 잘 요약해서 보여준다. 소녀는 아름다워야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외면과 내면 모두를 충족해야 하고 소녀에게는 지식과 교양이 바탕이 된 현명함도 필요하다. “아름다움은 가꾸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외모의 아름다움만이 아닙니다. 진실로 오래 빛나는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입니다.”라며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한편 “지식을 통하여 교양을 쌓을 수 있고, 지식과 교양을 귀하게 여기는 습성을 통하여 인간됨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외면보다는 내면에 충실하고, 현재보다는 미래에 충실할 줄 아는 사람”을 이상적인 소녀로 꼽는다.<sup>17)</sup>

소녀 담론은 사회와 국가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소녀상을 이야기하는 한편 가정 내에서 이상적인 딸의 모습도 규정한다. 소녀 담론에서 외적

16) 〈남성들이 좋아하는 여성상〉, 『여학생』 제12권 5호, 여학생사, 1976년 5월, 120-126쪽.

17) 〈특집 우리가 바라는 소녀상〉, 『여학생』 제13권 4호, 여학생사, 1977년 4월, 113-128쪽.

인 아름다움, 내적인 아름다움, 내면과 외면의 충실 등 관념적인 언어 이외에 등장하는 것이 주로 수줍음과 내성적인 성격 등 조용하고 소극적인 모습이다.<sup>18)</sup> 반면 가정 안에서의 소녀, 즉 ‘딸’에게 요구되는 것은 ‘명랑함’이다. 소녀는 애교 있는 딸로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형제들과의 관계를 잘 조율하며 가족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가정을 화목하게 해야 하는 존재로 강조된다. 1971년 1월호 특집 기사는 〈단란한 가정, 사랑받는 딸〉이고, 같은 해 9월호 특집 기사는 〈딸이 좋아, 딸과 가정〉이다. 이 기사에서는 “딸만 있어 쓸쓸한 아버지의 수기”가 실리고 “딸은 이미 가정의 꽃이 아니다. 기둥이다”라고 강조한다. 딸이 가정의 꽃으로 존재했다는 증명이기도 하다. 기사는 딸이 가정의 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와 실천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체성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는 “능력 있는 딸이면서 본분도 지켜야” 한다고 끝맺는다.<sup>19)</sup> 물론 그 본분은 가정의 기둥 역할을 하는 효녀를 말한다. 명랑함으로 집안의 분위기를 밝게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동시에 누군가의 딸로만 존재할 것이 아니라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 당당히 서야 함을 강조하지만 결국 이는 딸의 본분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결국, 효도는 매우 “영예로운 것”<sup>20)</sup>이라는 결론이다.

『여학생』의 소녀 담론이 이렇게 긍정적인 면을 강조했다면 이외는 매우 대조되는 부정적인 소녀상도 존재한다. 그리고 부정적인 소녀는 전적으로 가정 밖에 존재한다. 소녀들이 불만과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고 탈선하게 되면 그 결과는 가출로 이어지고 가출 소녀는 반드시 타락하

18) 〈여자는 내성적인 것이 매력의 포인트〉, 『여학생』 제10권 8호, 여학생사, 1974년 8월, 118쪽.

19) 〈딸이 좋아, 딸과 가정〉, 『여학생』 제7권 9호, 여학생사, 1971년 9월, 90-95쪽.

20) 〈효도, 그 영예로운 것〉, 『여학생』 제12권 5호, 여학생사, 1976년 5월, 86쪽.

고 범죄의 대상이 된다는 논리가 매우 견고하게 구축된다. 그리고 가출 소녀들이 부정적인 대상이 되는 이유는 그녀들이 ‘순결’을 상실했기 때문이고 순결의 상실은 곧 수치스러운 것이 되며 타락의 필수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꽤 많은 기사의 제목에 ‘순결’ 혹은 ‘가출’이 들어가 있다. 1970년 7월의 특집 기사 제목은 〈特輯: 健康한 美女로 한여름을〉이다. 기사대로라면 건강한 여름을 보내야 할 정보가 들어가야 하겠지만 특집의 첫 번째 기사 제목은 〈여름 - 그 유혹이 무서운 季節〉이다.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는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다. 필진은 “여름이 되면 젊음의 열풍도 거세진다. 덥다고 너무 노출하거나 유행을 따르는 옷을 입고 다니면 유혹당하기가 쉽다”라며 노출 = 유혹이라고 주장한다. 이어지는 기사는 소녀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존재하기 위해 어떠한 유혹으로부터 본인을 지켜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옷은 본래 계급과 직업을 표시하는 상징으로 발달된 것입니다. (중략) 일부 접대업을 하는 여성들과 같아서도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연령과 직업에 어울리는 자연스럽게 귀여운 그런 옷차림, 또한 젊으나 품위 있는 옷차림으로 여러분들을 꾸미십시오. 여학생이 접대업 여성과 혼동을 받을 옷차림을 했을 경우에는 몰지각한 청년들의 희롱과 유혹을 받게 되기 쉽습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여학생들이 느끼는 성적 충동의 처리 문제”, “심리적으로 가장 성적 충동을 강하게 느끼는 연령이 16, 7세” “이성을 그리워하고, 수줍어지고 수치심 같은 갈등을 느끼게 되는 시기가 바로 여러분들 나이의 소녀입니다.”<sup>21)</sup>라는 글에서 성적 충동은 수치스러운 것이며 유혹과 범죄의 원인 제공은 여성이라는 시각을 여지없이 드러낸다.

21) 〈정신위생 여름, 그 유혹이 무서운 季節〉, 『여학생』 제6권 7호, 여학생사, 1970년 7월, 60-62쪽.

1950년대 국가의 미래로 여겨졌던 청소년은 19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면서 문제적 집단으로 부각된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1968년 이후 여성의 순결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들의 소비습관과 옷차림 등을 문제 삼는다.<sup>22)</sup> 이렇게 가출이나 순결을 주제로 하는 기사들이 꾸준히 등장했고 흥미 위주의 자극적인 단어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았다. 독자의 고민 상담 글에서조차 순결을 잃을 뻔한 위기의 순간이 지나치게 길고 자세하게 묘사된다. 가출 원인에 대한 적절한 분석 없이 가출 자체에 대한 편견이 드러나며 가출 이후 순결을 잃게 된다는 불행한 결과를 강조하는 자극적인 기사가 많다. 1970년대의 한국은 유신독재 체제에서 근대화 와 산업화, 경제부흥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와 그 구성원들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했다.<sup>23)</sup> 소녀 담론 역시 국가적 이상향을 정해 놓고 방향성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그리고 사회의 틀과 규칙을 거부한 혹은 잠시 이탈한 결과는 곧 타락이고 그 결과 사회적으로 수치스러운 존재가 된다. 가출은 곧 규범 밖으로 나가는 지탄받는 행위인 것이다.

1970년대에 두드러진 여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형성은 1960년대의 소녀 담론과 구분되는 특징이다. 매체가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면서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도 심화한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학원』과 『여학생』에 실리는 광고도 서로 뚜렷하게 달라지기 시작한다. 『여학생』은 기사에서도 외모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외모나 치장과 관련된 광고도 증가한다.<sup>24)</sup> 1968년에 공포된 국민교육헌장을 기점으로

22) 권인숙, 「1950~70년대 청소년의 남성성 형성과 국민 만들기의 성별화 과정—청소년 잡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56호,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8, 314쪽.

23) 권은선, 「유신 정권기의 생체정치와 젠더화된 주체 만들기」, 『여성문학연구』 제2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419쪽.

24) 임인재, 「1970년대 대중문화 속 ‘학생’ 이미지의 구현」, 『현대영화연구』 제32호, 현대영화연구소, 2018, 105쪽.

로 청소년 잡지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지적하는 부분이다. 국민교육헌장은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를 공식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으로 나운경은 1968년 이전의 청소년 잡지는 교양, 문학 잡지의 성격이 강했지만 1970년대가 되면 성과 연애에 관련된 내용이 늘어나면서 그 내용은 “현격하게 성별화” 했다고 지적한다.<sup>25)</sup> 즉 1960년대 초 국가재건을 위한 일꾼이었던 여성이 “군사주의의 핵심장치”인 “성 정치 안에서 남성은 여성을 보호하는 자로, 여성은 남성에게 의해 보호받는 자로 의미화”되고 “남성에 의해 보호받는 여성은 그 대가로서 남성에게 성적 대상이 되는” 것이다.<sup>26)</sup>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 여학생들은 연애와 소비의 주체로 잡지에 등장한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중 잣대가 적용된다. 잡지는 성애화되거나 경제 관념 없이 사치하는 여학생이 있었고, 이들은 사회의 수치이자 불필요한 존재, 계도의 대상이었다. 다른 한쪽에는 검소하고 순결하며 체제 순응적인 학생이 있었고 이들은 좋은 어머니가 되어 미래의 시민 육성을 담당하는 존재인 것이다.<sup>27)</sup> 이러한 소녀상은 기사뿐 아니라 『여학생』에 실린 소설과 만화에서도 재현된다.

### 2-3. 긍정과 부정이 충돌하는 소녀상

『여학생』의 소녀 담론은 극과 극을 오가며 모순의 충돌이 일어난다.

25) 나운경, 『60-70년대 개발국가 시대의 학생 잡지를 통해서 본 10대 여학생 주체 형성과 관련한 담론분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56호,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8, 332쪽.

26) 나운경, 『60-70년대 개발국가 시대의 학생 잡지를 통해서 본 10대 여학생 주체 형성과 관련한 담론분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56호,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8, 344쪽.

27) 김양선, 『취향의 공동체와 소녀들의 멜로드라마—잡지 『여학생』 소설 연구』, 『대중서사연구』 제24권 1호, 대중서사학회, 2018, 236쪽.

명랑소녀를 이야기하는 기사와 내성적이고 수줍음을 아는 여학생이 매력적이라는 기사가 함께 실린다. 건강한 아름다움이 진정한 미의 기준이라고 주장하지만, 곧 다른 기사에서는 미용체조와 이상적인 체중을 이야기한다. 특집 기사들은 주로 이상적인 소녀상과 함께 내면의 아름다움을 강조하지만 적지 않은 분량의 기사가 피부 미용, 미용체조 등 외적인 아름다움에 할애 되어 있다. 그러나 여성의 권리나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습과 타파되어야 할 전통을 지적하는 기사도 있다. 물론 전체 분량과 비교하면 절대 많지 않다. 1974년 7월호 특집 기사인 〈특집 여자의 사회적 위치를 진단한다—왜 여자만 울어야 하나요?〉<sup>28)</sup>는 제목처럼 전통적인 여성상과 가부장적 사회에 대한 불만, 직장 내 성차별, 제도 내에서의 합법적인 성차별 등을 비판한다. 그러나 이러한 성차별 비판 기사는 성차별 문제를 의식하기는 했으나 성별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이며 여성 스스로의 주체성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기보다는 여전히 객체화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사회적 모순을 용인하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여성들이 “잔병이 잦은 그만큼 감정 역시 섬세하고 미묘하여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쉽게 감동하는 등 감정의 기복이 무척 심하다”라는 산부인과 원장의 인터뷰를 인용하거나 남자에게 기대려 하는 여자의 약한 본능에서 가정과 사회에서 남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지는 것의 당위성을 찾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오직 성뿐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여성은 능동적인 생활 태도를 가지고 독립된 인격체로 존재해야 하며 헌법은 남녀를 평등하게 규정하고 있으니 “여자라는 긍지를 갖자”라는 칼럼으로 마무리된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칼럼의 바로

28) 〈특집 여자의 사회적 위치를 진단한다—왜 여자만 울어야 하나요?〉, 『여학생』 제10권 7호, 여학생사, 1974년 4월, 152-162쪽.

다음 페이지는 <노출의 계절! 각선미의 종합연구>라는 기사가 차지한다. 이러한 간극은 『여학생』의 기사 전반에 메울 수 없는 틈을 만든다.

1970년대 페미니즘 운동을 소개하는 기사도 있다. 미국의 우먼 리브에 관한 기사인데 1970년 9월호 기사인 <여성은 남성의 노예가 아니다—미국을 휩쓸고 있는 리브 운동의 내막><sup>29)</sup>이다. 우먼 리브에 관해 간단히 설명하고 “여성해방 운동을 부르짖는” ‘리브족’의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한다. 제목은 여성해방 운동을 긍정하는 것 같지만 소제목들은 너무나 자극적이다. ‘남성은 여성의 적’, ‘현모양처에 반대’, ‘남성은 불구자’라는 것이 이들 ‘리브족’의 주장이라고 소개한다. 그리고 기사의 마무리는 여성해방 운동에 반대하는 인류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라는, 지금까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인간의 조건을 뒤 흔드는 대폭동이 여성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라는 문장과 함께 이러한 선풍이 곧 한국에도 상륙해 맹위를 떨칠 것이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된다. 독자들이 여성해방 운동의 본질과 상관없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유도하는 듯한 편집이다.

### 3. 만화가 그린 명랑소녀

1960년대의 경제 발전과 공교육의 확대를 바탕으로 1970년대는 대중들의 문화 향유 욕구가 커진 시기이다. 대중문화가 발달했고 경제적으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국민도 증가했다. 그리고 교육의 확대로 다양한 문화를 소비할 수 있는 인구도 증가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정치적

29) <여성은 남성의 노예가 아니다—미국을 휩쓸고 있는 리브 운동의 내막>, 『여학생』 제6권 9호, 여학생사, 1970년 9월, 84-89쪽.

불안정과 억압, 국가적 통제 역시 매우 강한 사회였다. 이러한 불균형은 사회가 정해 놓은 규율을 거부하는 일탈 욕구로 이어졌다. 청소년들, 특히 여학생들에게 전통적인 여성상이 강요된 만큼 그 강요에서 벗어나려는 반작용이 뒤따랐다. 이러한 충동은 잡지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순정만화가 통제와 검열하에서 무미건조한 교훈적 내용을 반복하는 사이 규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던 잡지 만화는 단행본 만화가 그리지 못하는 세계를 구현했다.

1960~70년대 잡지의 소녀 담론을 살펴보면 이 시기 형성된 소녀상이 만화 검열의 잣대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화와 비교했을 때 순정만화에 대한 검열은 특히 가혹했다. 순정만화가 가진 특유의 화려한 조형미조차 규제의 대상이 된다. 주인공의 화려한 머리 모양과 옷차림은 사치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검열의 대상이 되어야 했고 작품 속 소녀들은 남자와 단둘이 있는 것도 불가능했다. 1960년대 순정만화에서 자주 묘사되었던 선량한 소녀의 고난 극복담도 점차 사라진다. 사회의 모순이나 폭력, 어두운 면을 작품에 그리는 것은 검열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한 검열의 결과 착하고 순종적이며 때로는 명량한 소녀만이 살아남았다. 소년들에게 좀 더 다양한 선택지와 열린 세상을 제시했던 잡지처럼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만화는 SF, 탐정, 스포츠 등 여러 가지 장르를 만들어냈다. 1960년대 순정만화는 제한된 플롯 안에서 다양한 변화를 추구했지만, 1970년대 순정만화는 급속하게 활기를 잃었다.<sup>30)</sup> 당시 소년 잡지는 그것이 비록 국가주의적 목표였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인 소양과 교양 교육뿐 아니라 진취적인 사고와 과학 지식의 함양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여학생은 미래의 현모양처를 지향점으로 삼았다.

30) 김소원, 『시대가 그려낸 소녀: 한·일 순정만화의 역사』, 소명출판, 2021, 130-134쪽.

1960년대 순정만화가 가족의 묘사를 최소화하거나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주인공의 시련이 이야기의 주요 소재였던 것과 달리 1970년대 순정만화 속의 주인공은 대체로 가정 내에서 보호받으며 딸의 역할을 무난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잡지에서 구현하는 소녀상이 서로 충돌한 것처럼 독자가 원하는 극적인 전개 속에서 여러 가지 시련을 겪는 소녀는 국가가 제시한 이상적 소녀상으로는 그릴 수 없었다. 잡지는 다양한 관점으로 대중성과 오락성, 그리고 국가적 규범을 모두 소화할 수 있었지만 같은 시기 단행본으로 출간된 순정만화에서는 불가능했다. 1970년대 순정만화는 만화 전반에 가해진 검열에 더해 당시 독자들에게 주입해야 하는 이상적 소녀상의 재현이라는 이중과제를 떠안았고 그 결과 심한 정체기를 겪게 된 것이다.

그러나 잡지 만화는 단행본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소녀를 그렸다. 1970년부터 1979년까지 『여학생』에 2회 이상 연재된 작품은 총 31 작품이고 1년 이상 연재된 장편 만화는 총 열세 작품이다. 1년 이하 짧은 기간만 연재되었거나 1, 2회로 끝나는 만화가 많으며 연재만화는 거의 유니버스 스타일의 명랑만화<sup>31)</sup>로 창작자 또한 남성이 대부분이다. 한 칸 만평도 있고 1~2페이지 분량의 짧은 만화도 많아 장편 연재작이 주류는 아니었다. 이러한 짧은 만화는 대부분 여학생이 주인공이거나 주요 등장인물로 나오며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에피소드를 웃음으로 풀어낸 작품들이다. 잡지 만화는 단행본처럼 맹목적인 교훈에 매몰되지는 않았다. 『여학생』의 전체 연재작 중에는 이름이나 별명을 제목에 차용한 작품이 많다.<sup>32)</sup> 1960~70년대에는 이름에 캐릭터의 특징이 그대로 드

31) 제목에 '명랑만화' 혹은 한문으로 '明朗漫畫'로 표기하거나 '유우머만화'로 표기한다.

32) 김성환 <미스 앵두>, 정운경 <새침이>, <시스터 난실이>, 이상무 <노미호와 주리혜>, 김준호 <도라지 양과 키다리 군>, 김을순 <미스 도둑바>, <뽀뽀양의 일기>, 이우봉 <미스 붕어>, 강윤택 <미스 깨속이>, 이인옥 <메추리 양>, 김판국 <깡속이>, 이우봉

러나는 명랑만화 주인공들이 대거 등장하는데 『여학생』의 연재만화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이어진다.<sup>33)</sup>

이러한 작품의 주인공들은 학교나 가정에서 여러 가지 사고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장난으로 웃음을 준다. 『여학생』에 가장 오랫동안 연재된 이상무의 <노미호와 주리혜>(1966년 6월~1984년 12월 연재, <그림 1>) 역시 주리혜라는 여학생의 옆집으로 노미호라는 남학생이 이사를 오면서 시작하는 옴니버스 명랑만화이다. 만화는 매회 노미호의 엉뚱한 장난으로 웃음을 준다. 이렇게 웃음에



<그림 1> 이상무, <노미호와 주리혜> (『여학생』 1966년 6월호, 332쪽.)

집중하는 작품은 1960년대 순정만화에서는 볼 수 없는 경향이다. 1960년대 순정만화에서는 고난을 이겨내는 착한 소녀는 등장하지만, 이들은 명랑과는 거리가 멀었다. 말썽을 피우거나 익살맞은 행동으로 웃음을 주는 것은 소녀들의 몫이 아니었다. 1960년대 만화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소녀들이 대거 등장한 것이다. 명랑은 1970년대를 대표하는 사회적 지향점이었다. 잡지에 실린 여러 기사에서 딸은 가정에서 명랑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작품의 주인공인 소녀들은 엉뚱한 장난으로 웃음을 주지만 그러한 장난이 근본적인

<셀쪽이 일기장>, 박상기 <맹공자양>, 신진식 <왈숙이> 등이 있다.  
 33) 주인공의 이름을 작품 제목에 차용하고 일상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코믹하게 그리는 만화는 1950년대 일본 소녀만화의 주류이기도 했다. (김소원, 『시대가 그려낸 소녀: 한·일 순정만화의 역사』, 소명출판, 2021, 151-152쪽.)

사회 규범을 흔드는 것은 아니다. 많은 기사에서 가정에서 명랑한 딸의 역할을 강조했고 만화도 이러한 경향을 보여준다. 1970년대 이후 청소년 소설을 가리키는 말로 ‘명랑소설’이 활용될 만큼 이 시기 어린이, 청소년 대중문화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명랑이다. 당시 국가는 조국 근대화를 위해 명랑한 사회 건설을 내걸었다. ‘명랑’에 대해 김지영은 “국가 정책에 이의 없이 협조하는 체제순응적 태도”로 분석한다. 그리고 1970년대 이후 ‘명랑’의 장르적 특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소설과 드라마, 어린이용 만화의 장르 코드로 변모한다.<sup>34)</sup> 명랑은 군사정권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한 사회적 덕목이자 이데올로기였다. 명랑은 국민교육헌장<sup>35)</sup>에도 등장하는 당시 사회의 지향점이었고 1970년대 만화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고스란히 드러난다. 1970년대를 대표하는 만화에 대해 박인하는 잡지와 신문에 연재된 명랑만화와 성인만화로 나눌 수 있으며 독점의 전횡으로 망가진 만화방 만화를 대처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이들 명랑만화의 특징에 대해 “전형적인 캐릭터”, “일상성에서 오는 잔잔한 웃음”, “당대적 상황”이 있으며 1970년대에 “일상성이 추가”된 것으로 설명한다.<sup>36)</sup> 순정만화 혹은 여성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화에서 명랑이 강조된 유일한 시기가 1970년대이다. 『여학생』의 연재만화는 이러한 명랑만화의 특징을 주인공 여학생을 통해 보여주는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이 논문에서 다룬 엄희자의 〈푸른지대〉에서 그리는 ‘명랑’이 화목한 가정과 성실한 딸들이 만들어내는 ‘체제

34) 김지영, 『‘명랑’의 역사적 의미론: 명랑장르 코드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제47호, 한민족문화학회, 2014, 354-362쪽.

35)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36) 박인하, 『한국 명랑만화 장르의 형성과 발전 연구』, 『애니메이션연구』 제8권 4호, 한국애니메이션학회, 2012, 52-55쪽.

순응적' 명랑이라면 방영진의 〈미니 행진곡〉에서 그려지는 명랑은 소년 만화의 전형인 말쑥꾸러기들이 만들어내는 웃음이다.

1970년대에 연재된 작품 중 기승전결이 뚜렷한 연속적 서사를 가지고 있는 작품은 총 7 작품으로 많지 않다. 그리고 이들 작품은 모두 1년 이상 연재되었다. 1970년부터 1979년까지 『여학생』에 1년 이상 연재된 작품은 다음과 같다.

〈표 1〉 1970년대 『여학생』 1년 이상 연재만화

작품 제목	작가	연재 기간
미니 行進曲	방영진	1970.9~1971.8
태양의 합창	이혜순	1973.1~1974.2
오로라가 보이던 날	이혜순	1974.3~1976.3
사랑스런 말괄량이	이혜순	1976.5~1977.4
오빠에게	이혜순	1977.5~1978.7
푸른 지대	엄희자	1978.7~1979.7
상급생	이혜순	1978.8~1980.6

『여학생』이외에도 소녀잡지에 다수의 작품을 연재한 이혜순은 1980년대 초까지 활동했다. 이혜순은 순정만화의 역사에서 매우 모호한 위치에 있으며 그 평가 또한 엇갈린다.<sup>37)</sup> 1970년대 활발하게 활동했음에도 갑자기 작품활동을 중단했고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없다. 이혜순의 일부 작품, 혹은 작품 대부분은 일본 만화의 모작으로

37) 손상익은 “일본만화를 그대로 모방한 것에 지나지 않아 독창적 작품성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다.(손상익, 『한국만화통사 하』, 시공사, 1998, 295쪽.) 반면 박인하는 “여학생들에게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작가”, “많은 소녀들의 심금을 울린 작가”로 평가한다. (박인하, 『누가 캔디를 모함했나—박인하의 순정만화 맛있게 읽기』, 살림, 2000, 86쪽.)

대사와 인물표현, 칸 연출 등 전반적인 부분을 그대로 모방했다. 『여학생』에 연재한 작품 중 〈오로라가 보이던 날〉은 츠쿠모 무츠미(津雲むつみ, 1952~2017)가 1971년부터 소녀만화 잡지 『주간 세븐틴(週刊セブntein)』에 연재한 〈오로라가 보이는 날(オーロラの見える日)〉의 모작이다. 1977년부터 연재한 〈오빠에게〉는 이케다 리요코(池田理代子, 1947~)가 1974년부터 『주간 마가렛』에 연재한 〈오빠에게…(おにいさまへ…)〉의 모작으로 인물의 조형성, 칸 연출 등 모든 부분이 거의 흡사하다. 〈태양의 합창〉은 도중에 작가가 바뀐 채 연재되기도 했다. 〈태양의 합창〉이나 〈사랑스런 말괄량이〉도 스타일에서 일본 소녀만화와와의 연관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시각적 표현뿐 아니라 대사와 스토리가 전반적으로 일본 소녀만화의 모작 가능성이 있다. 이혜순의 작품에 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논하기로 하고 본 연구에서 주목할 작품은 엄희자의 〈푸른 지대〉와 방영진의 〈미니 行進曲〉(이하 〈미니 행진곡〉)이다.

### 3-1. 완벽한 가정의 조건과 딸의 역할 〈푸른 지대〉

엄희자는 1964년 데뷔 이후 줄곧 높은 인기를 누린 순정만화가로 196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이다. 1960년대 엄희자의 작품은 판타지와 스릴러, 시대극 등 다양한 장르적 특징을 함께 가지고 있었고 동시대의 다른 작가와 비교해 다양하고 풍부한 서사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1970년대가 되면 서사가 단순해지고 작품의 분량도 2~3권 정도로 짧아지면서 다채로운 서사를 가진 작품은 보기 힘들어진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준 서사뿐 아니라 순정만화가 가진 특유의 화려한 시각적 요소도 검열의 대상이 되면서 인물표현이나 배경의 표현도 단순해진다. (〈그림 2, 3〉)



〈그림 2〉 엄희자, 〈행복의 별〉<sup>38)</sup>



〈그림 3〉 엄희자, 〈푸른 지대〉

1970년대 순정만화는 이야기의 교훈성에 지나치게 의미를 두거나 짧은 분량에 맞추기 위해 서둘러 결말 지어졌고 비슷한 플롯이 많았다. 1970년대의 순정만화는 1960년대의 순정만화와 비교하면 서사 면에서도 특유의 스타일에서도 많이 퇴보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푸른 지대〉는 비슷한 시기 단행본으로 나온 엄희자의 다른 작품들과 달리 비교적 흥미로운 서사를 보여준다.

〈푸른 지대〉는 ‘푸른 지대’라는 이름의 분식집을 운영하는 홀어머니와 그 자녀들의 이야기이다. 고등학생인 큰딸 하나, 중학생인 쌍둥이 자매 두 나와 세나 그리고 막내아들인 민기가 가족의 구성원이다. 이야기는 세나의 시점에서 진행된다. 세 자매는 『여학생』이 여러 기사에서 강조한 이상적인 딸의 역할에 매우 부합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세 자매는 학교에 가기

38) 엄희자, 〈행복의 별〉, 『한국만화결작선 9: 엄희자 컬렉션』, (재)부천만화정보센터, 2008, 25쪽.

전 아침 일찍 일어나 분식집 일을 돕고 등교하는 부지런한 학생들이다. 그렇지만 아들인 민기는 철없는 귀여운 막냇동생의 역할만을 한다. 두나는 투덜대고 가게 일을 돕는 것에도 수동적이지만 반항하거나 어떤 문제를 일으키진 않는다. 주인공 하나는 '장녀'로서의 역할을 매우 성실하게 수행한다. 책임감도 있고 동생들을 돌보며 어머니를 돕는 전형적인 착한 딸의 모습을 보여준다. 잡지의 여러 기사가 말한 완벽한 딸의 역할이다.

이야기는 가게에 아침 식사를 하러 들렀지만, 식사가 끝나고서야 지갑을 가지고 나오지 않은 것을 안 청년 재진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두나는 무전취식을 일삼는 형편없는 사람으로 재진을 대한다. 그러나 재진은 대학생이고 종합병원의 치과의사이면서 대학교수인 아버지를 둔 유복한 청년으로 '남자주인공'의 요건을 잘 갖추고 있다. 재진은 바쁜 어머니를 돕는 자매들의 모습에서 가정의 따뜻함을 느끼고 밥값을 치르지 못하는 자신을 너그럽게 보내준 자매의 어머니에게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린다. 이 부분부터 작품은 의외의 방향으로 흘러간다. 하나가 재진에게 호의를 느끼지만, 재진은 하나에게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재진은 하나의 어머니를 아버지의 재혼 상대로 생각한다. 하나에게는 첫사랑인 재진에 대한 감정은 어머니의 행복과 동생들에게 아버지를 만들어 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아주 빠르게 수습이 된다. 하나에게 심리적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야기의 흐름에서 비중 있게 다루지지 않는다.

작중에 등장하는 주요 여성 캐릭터는 총 다섯 명이다. 어머니와 하나, 두나, 세나 그리고 재진 아버지가 결혼 상대로 생각하고 교제하고 있는 한 선희이다. 어머니와 세 자매는 『여학생』이 강조했던 이상적인 어머니와 소녀상을 충실하게 재현한다. 어머니는 매우 아름답고 헌신적이며 성실하다. 아침 일찍부터 가게를 열고 아버지가 없는 집안을 책임지기 위해 최선을

을 다해 가장의 역할을 한다. 외출할 때는 한복을 입는다. 전형적인 현모양처의 재현이다. 1960년대 만화에서 아버지가 계시지 않다는 것은 곧 빈곤을 의미했지만, 이 작품에서는 이들 가족에게 경제적 어려움이나 그들은 보이지 않는다. 아름답고 근면한 어머니는 아버지의 역할까지 해내면서 더욱 완벽해진다. 한편, 이들과 대척점에 있는 한선희의 묘사는 매우 대조적이다. 화려한 옷차림과 머리 모양을 하고 있으며 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즐긴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 사치는 죄악시되던 시기, 사치스러운 여성은 본인의 능력 여하와 관계없이 더욱 지탄받았다. 한선희는 사람들 앞에서 익숙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담배를 피우고 결혼 후 1년 동안 세계 여행을 하고 싶고 그동안 아들인 재진은 하숙을 구하면 된다고 한다. 이러한 묘사로 한선희는 어머니 자격을 완전히 상실한다. 여성의 미덕으로 강요되었던 모성과 소박함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선희가 남자의 능력에 기대려는 사람은 아니다. 본인 스스로 “돈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며 자신에게도 “그만한 여유쯤은 있”다고 말한다.<sup>39)</sup>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음에도 한선희가 누리는 풍요, 그리고 결혼 후 꿈꾸는 화려한 생활은 올바르지 않은 것이 되어 버린다. 한선희가 늘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피력하는 모습도 당시의 이상적인 여성상과는 거리가 멀다.

한선희와 달리 하나는 재진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음에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이상적인 소녀상으로 강조되었던 수줍음 많고 내성적인 모습 그대로이다.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나 가정 내에서 큰 언니의 역할을 할 때의 야무진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그리고 하나의 로맨스는 작품 속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1960~70년대 순정만화가 1980년대 순정만화와 다른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로맨스 서사의 유무에 있다. 1960~70년대 순정만화에서 로맨스는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었다. <푸른 시대>에서도 로

39) 엄희자, 『푸른 시대』, 코어아트북, 2012, 120쪽.

맨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학생』에서 여고생의 일탈이나 가출을 다루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결과 순종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되었듯 10대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화에서 로맨스는 일탈이며 타락인 것이다. 재진의 시야에 하나는 존재하지 않고 하나의 사랑도 짧은 짝사랑으로 끝난다. 하나는 재진의 동생이 되어서는 “행복해지지 않아요!”라고 재진에게 단호하게 말하지만 결국 마음을 정리하고 재진의 아버지를 찾아가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부탁한다. 하나는 “좋은 딸이 되도록 노력하겠어요”, “우리 엄마···행복하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며<sup>40)</sup> 아빠가 필요한 동생들, 그리고 완전한 형태의 가정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포기한다. 마찬가지로 자매들의 어머니나 재진의 아버지가 결혼을 결심하는 이유는 두 사람 사이의 감정 교류가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가 모두 존재하는 완벽한 가정을 자식들에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이다. 분식점에서 자매들의 어머니가 차려주는 음식을 맛있게 먹은 재진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리며 자신의 어머니가 되어 주길 바라게 되는 부분이나, 의사의 아들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고 다니는 모습은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당시의 인식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작품에서 세 자매의 어머니나 재진의 아버지는 이름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작품의 시작 부분에서 세나가 가족들을 소개하지만, 자매들의 어머니는 그저 ‘어머니’로 소개될 뿐이다. 재진의 아버지 역시 작품 속에서 등장인물들에 의해 ‘선생님’으로 불리지만 이름은 끝까지 나오지 않는다. 자매들의 어머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니로 소개되고 불리지만 한선희는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한 여사로 불리는 것과 대조적이다. 엄희자의 1970년대 작품은 이렇게 전형적으로 설정된 소녀와 어

40) 엄희자, 『푸른 시대』, 코어아트북, 2012, 173-174쪽.

머니를 그리는 경우가 많다. 소녀는 명랑하고 적극적인 딸이고 어머니는 자애롭고 조용하며 아름답다. 1970년대 순정만화가 천편일률적인 내용으로 독자들에게 외면당한 것은 검열이나 합동출판사의 전횡도 있지만 이렇게 시대가 강요하고 주입한 무미건조한 소녀상을 지속해서 구현했기 때문이다.

### 3-2. 현실에는 없는 그들 <미니 行進曲>

<푸른 지대>가 가정 내에서 소녀의 역할을 이야기한다면 방영진의 <미니 행진곡>은 남녀고등학생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방영진은 1950년대 말 데뷔해 <약동기와 영팔이>(1962)로 인기를 얻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한동안 만화계를 떠나있었고 오랜만에 복귀한 작품이 <미니 행진곡>이다. <미니 행진곡>은 같은 반 친구이면서 서로 이웃인 미희와 학자, 그리고 이들의 또 다른 이웃인 남학생 미철과 시원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미철과 시원은 서울에서 고등학교에 다니기 위해 상경해 둘이 함께 자취하고 있지만, 미희와 학자의 경우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작품 속에 미희와 학자의 어머니가 등장하는 것이 우연은 아니다. 소녀는 가정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만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작품의 주인공인 미희는 공부도 잘하고 외모도 예쁜 학생이지만 순종적이거나 암전하지는 않다. 교실에서 장난을 친 학자를 때리고 혼내는 선생님에게 미희는 “여성에게 폭력을 쓰시는 건 비신사적인 행동예요!”라며 항의한다. 이 일로 교무실에 불려간 미희에게 선생님은 “미희같이 공부 잘하는 학생도 선생님에게 반항하나”<sup>41)</sup>라고 한다. 모범생, 특히 여학생은 공부도 잘해야 하지만 선생님 말씀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을 작품 속에서 은연

41) 방영진, <미니 行進曲> 1회, 『여학생』 제6권 9호, 여학생사, 1970년 9월, 259-260쪽.

중에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룻길의 미희는 ‘말 잘 듣는’ 학생과는 거리가 멀다. 단발머리가 짧아 보이도록 짧은 핀을 빼고 교복 치마도 짧게 걷어 올린다. 치마를 너무 짧게 입은 것이 아니냐는 학자의 말에 미희는 “이 정도는 보통이지 뭐!”라고 대답한다.<sup>42)</sup> 이와 같이 미희는 여러 면에서 여학생에게 강요된 규범에서 벗어나는 캐릭터이다. 미희의 일탈은 당시 독자들의 욕구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미희는 모범생이지만 남학생과 스스럼없이 어울리고 그들에게 기타를 배운다. 이러한 미희의 행동은 순정만화와는 다른 방법으로 독자들에게 대리만족을 주었다. 미희의 행동은 작가가 남성이기에 가능한 것일지도 모른다. 같은 행동을 해도 남성에게 훨씬 관대한 사회였던 만큼 남성 작가가 그려내는 세계 속의 여자 주인공에게는 더욱 다양한 경험이 허락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미희의 작은 일탈을 독자들이 용인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미희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고 근본적으로 선하다는 데에 있다.

1960년대 순정만화에서 자주 묘사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부재는 이 작품에서 그려지지 않는다. 미희와 학자의 가정환경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되고 있지는 않지만, 두 사람 모두에게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정의 불화는 없는 것으로 그려진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어머니들이 집에 있는 것으로 보아 전업주부로 짐작할 수 있으며 두 사람 모두 마당과 마루가 있는 집에서 살고 있다. 이들의 집은 1970년대 초 서울의 평범한 가정의 모습으로 묘사된다. 작품 전회에서 두 사람이 안고 있는 큰 고민이나 어려움은 전혀 묘사되지 않는다. 미희와 학자와 함께 이 만화의 주요 등장인물인 고등학교 남학생 시원과 미철은 지방에서 상경해 두 사람이 함께 자취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방영진은 본격적인 학원물을 선보인 작가로 평가받는데 특히 당시의 생활

42) 방영진, 〈미니 行進曲〉 1회, 『여학생』 제6권 9호, 여학생사, 1970년 9월, 260쪽.

상을 작품 속에 매우 사실적으로 구현한 작가이기도 하다.<sup>43)</sup> 어느 날 담장 너머로 들리는 기타 소리에 끌려 미철과 시원을 몰래 엿보던 미희와 학자가 넘어지는 소동이 일어나며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미니 행진곡〉은 주요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를 큰 갈등 없이 그려나간다.

〈미니 행진곡〉의 미희처럼 반항적인 여자 주인공이나 학자와 같은 장난꾸러기 여학생은 전통적인 순정만화의 전형성에서는 벗어나는 설정이다. 그러나 『여학생』에 연재된 많은 명랑만화의 여자 주인공, 특히 남성 작가의 작품 속 여자 주인공들은 이런 장난꾸러기 캐릭터로 그려진다. 한 회 연재 분량이 많지 않은 이들 명랑만화는 주인공들이 벌이는 소동이 이야기의 중심이고 이러한 엉뚱한 행동이 독자들에게 웃음을 준다. 이들 작품에서 학교와 친구들, 가정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생략된다. 〈미니 행진곡〉도 네 명의 학교생활과 가족들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없다. 이야기의 중요한 소재는 시원과 미철이 연주하는 기타로 미희와 학자는 시원과 미철의 집으로 가서 기타를 배우게 된다. 기타를 치는 장면도 자주 등장하고 작품 속에 인물이 연주하는 곡명도 구체적으로 언급된다. 기타가 작품의 중요한 소재의 하나로 등장하는 것은 작가 방영진이 고교 시절 밴드부 활동 경험이 있고 만화를 그만둔 후 작곡가로 활동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sup>44)</sup> 제목의 ‘행진곡’에서 볼 수 있듯 이 작품이 작가의 의도대로 연재되고 완결되었다면 음악을 소재로 네 사람의 성장기나 학교생활이 그려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니 행진곡〉은 진행 중인 이야기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채 12회에서 급히 완결되어버렸다. 따라서

43) 김대근, 『방영진의 만화 〈약동이와 영팔이〉에 재현된 1960년대 한국의 사회자본: 연대의 성격과 연결망의 특징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제54호, 인문콘텐츠학회, 2019, 12쪽.

44) 박재동, 『생활의 숨결에 유머를 불어넣은 작가, 방영진』, 『한국만화의 선구자들』, 열화당, 1995, 147쪽.

작품에 대한 완전한 평가와 분석에는 한계가 있지만, 주인공 미희의 캐릭터가 당시 만화에서 그려진 여자 주인공과 다른 것은 분명하다.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이지만, 선생님께 해야 할 말은 하는 성격이면서 엄격한 복장규율을 살짝 어기고 남학생의 집에 드나들며 기타를 배우고 함께 놀러 가는 일탈도 즐길 줄 안다. 네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본 다른 남학생들과 시비가 붙어 주먹이 오가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당시의 사회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들의 행동은 모범생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작가는 미희 어머니의 대사를 빌려 미희의 이러한 행동이 문제 될 게 없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구운 생선 한 마리를 미철에게 몰래 준 것을 숨기는 미희에게 미희의 어머니는 미희가 이웃의 남학생들에게 기타를 배우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니 부끄러워할 것 없으며 다 이해한다고 한다. 다만 먼저 이야기해주길 기다렸다면 “우리 미희는 공부도 잘하면서 그런 취미도 갖고 하니 엄마는 오히려 자랑스러운걸”이라고 이야기한다.<sup>45)</sup> 의외의 흐름이기는 하지만, 『여학생』의 여러 기사가 부모님께 허락받은 ‘건전한 이성 교제’에 한해서는 호의적이었던 것의 연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미니 행진곡>의 주인공 미희는 규율 속의 명랑소녀로 형상화된 것이다.

#### 4. 결론

<푸른 지대>와 <미니 행진곡>에서 그려진 소녀들을 비교해 보면 서로 차이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푸른 지대>는 당시 사회가 요구하던

---

45) 방영진, <미니 行進曲> 4회, 『여학생』 제6권 12호, 여학생사, 1970년 12월, 305쪽.

이상적인 소녀상을 매우 착실하게 재현한다. 주인공 하나뿐 아니라 하나의 동생들, 하나의 어머니와 재진의 아버지, 남자주인공격인 재진까지 모두 선하고 자신의 욕구보다는 부모님(자식)을 우선하는 선택을 한다. 이 작품에서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것은 시대와 사회가 요구한 압전한 여성이 아닌 한선희뿐이다. 그리고 사회의 통념에 부합하는 건전한 가족의 결성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된다. 〈푸른 지대〉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대부분은 여성이다. 그리고 이들은 당시 사회가 요구하는 어머니와 딸들로 그려진다. 1960년대 엄희자의 작품을 비롯한 여러 순정만화가 주로 십 대 초반의 소녀를 주인공으로 했던 것과 비교하면 주인공의 나이가 잡지의 주요 독자의 나이와 비슷한 10대 후반으로 높아졌음에도 묘사는 평면적이다. 교훈적인 결말을 위해 주인공의 내적 갈등은 쉽게 종료되고 인물 간의 갈등도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선과 악의 대비가 뚜렷하고 주인공에게 시련을 주는 악역의 존재가 명확했던 1960년대 순정만화와는 많이 다른 양상이다. 이는 교훈성에 매몰된 명백한 퇴보이다.

〈미니 행진곡〉의 등장인물들은 〈푸른 지대〉보다 훨씬 의외성을 가지고 있다. 공부 잘하는 우등생이고 선생님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할 줄 아는 당찬 미희이지만 학교 밖에서는 모범생의 정형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고 이웃의 남학생들에게 기타를 배우는 것을 어머니에게 들켰을 때는 부끄러움에 눈물을 흘린다. 그러나 미희가 학교 안에서 다소 반항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단 1회에서 그친다. 주인공인 미희를 독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되었을 뿐 작품 전체의 서사에서 미희가 보여주는 일탈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1970년대 학생문화는 “국가, 혹은 기성세대가 기획해 놓은 틀 안에서의 ‘자유’로 정의”할 수 있다.<sup>46)</sup> 미희

46) 임인재, 『1970년대 대중문화 속 ‘학생’ 이미지의 구현』, 『현대영화연구』 제32호, 현대영화연구소, 2018, 101쪽.

와 그 친구들은 기성세대가 정해 놓은 틀 안에서만 자유를 느껴야 했다. 특히 주인공인 미희의 모든 행동은 학교에서는 선생님, 집안에서는 어머니의 이해와 허락을 얻었기에 정당화된다. 그러나 이 시기 대중매체에서 이상적인 남학생은 문제아인 동시에 모범생의 이미지를 함께 가지고 있었다. 남학생들이 일으키는 문제나 사건, 사고는 친구들과의 우정이나 남자다운 진취적이고 활동적인 모습으로 포장되었다. 그러나 여학생에게는 순수와 순결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성 교제를 비롯한 성적 매력을 강조하는 대조적인 기준이 존재했다.<sup>47)</sup> 이는 미희와 학자가 집안 일도 성실하게 돕고 학교에서 큰 말썽을 피우지 않는 학생들이고 예절 바르며 미희는 공부까지 잘하지만 두 여학생은 미철과 시원에게 이성으로 끌리는 매력도 가지고 있는 것과도 같다. <푸른 지대>가 도덕적인 관점에서 여학생의 이미지만을 충실히 형상화했다면 <미니 행진곡>은 두 소녀에게 명량함도 부여했다. 그러나 미희가 흘리는 반성의 눈물이나 우등생이라는 대외적 이미지는 당시 여학생들에게 유난히 엄격했던 이중적 규범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잡지의 특성과 주요 독자층에 맞추어 여학생을 주인공으로 그렸지만, 방영진 작가는 자신의 전작들에서 보여준 남자주인공의 특징을 미희에게 좀 더 순화해 부여한다. 따라서 선생님에게 항의하던 당당한 모습이나 치마를 올려 입는 불량한 모습은 1회에서 딱 한 번 등장할 뿐이다. 기타를 배우는 것도 이야기의 중심 소재이기에 빼놓을 수 없는 묘사지만 친절하게도 작가는 어머니의 허락을 받는 장면을 그려 넣었다.

1960~70년대 대중매체에서 그려진 여학생은 기성세대의 규율 밖으로 나가서는 존재할 수 없었다. <푸른 지대>와 <미니 행진곡> 모두 『여학

47) 임인재, 『1970년대 대중문화 속 ‘학생’ 이미지의 구현』, 『현대영화연구』 제32호, 현대영화연구소, 2018, 103-106쪽.

생』에서 수차례 텍스트화되었던 소녀상을 재현한다. 전통적 순정만화를 기반으로 활동한 작가와 남자 고등학생들을 등장시킨 학원물로 인기를 얻은 두 작가가 가진 개성이나 작품의 연출과 구성, 이야기 전개 방식은 모두 다르다. 그러나 작품이 지향하는 것은 결국, 가정 안에서 안전하고 성실한 딸이 이상적인 소녀라는 교훈이다. 두 작품 모두 만화의 근본적인 재미보다는 당시의 사회적 규범과 교훈을 보여주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1970년대 잡지에서 끊임없이 주장했던 소녀상은 만화에서도 충실하게 재현된다. 그리고 이는 당시 순정만화의 검열과 창작의 기준이 되었다. 국가주의적 이념은 사회 전반에 획일화된 가치관을 강요했고 만화도 이를 어김없이 재현했다. 1970년대 순정만화에서 그려진 교훈적 이야기 속의 평면적 주인공은 당시 사회가 요구한 만들어지고 강요된 이상형이었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여학생』, 여학생사, 1970년 1월호~1979년 12월호.  
엄희자, 『푸른 시대』, 코어아트북, 2012. (e-Book)

### 2. 논문과 단행본

- 권은선, 『유신정권기의 생체정치와 젠더화된 주체 만들기』, 『여성문학연구』 제2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417-444쪽.
- \_\_\_\_\_, 『1970년대 국책영화와 대중영화의 상관성 연구』, 『현대영화연구』 제21호, 현대영화연구소, 2015, 7-36쪽.
- 권인숙, 『1950~70년대 청소년의 남성성 형성과 국민 만들기의 성별화 과정—청소년 잡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56호,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8, 281-321쪽.
- 김대근, 『방영진의 만화 〈약동이와 영팔이〉에 재현된 1960년대 한국의 사회자본: 연대의 성격과 연결망의 특징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제54호, 인문콘텐츠학회, 2019, 9-31쪽.
- 김소원, 『시대가 그려낸 소녀: 한·일 순정만화의 역사』, 소명출판, 2021.
- 김양선, 『취향의 공동체와 소녀들의 멜로드라마—잡지 『여학생』소설 연구』, 『대중서사연구』 24권 1호, 대중서사학회, 2018, 229-257쪽.
- 김지영, 『명랑의 역사적 의미론: 명랑장르 코드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제47호, 한민족문화학회, 2014, 331-367쪽.
- 나윤경, 『60~70년대 개발국가 시대의 학생잡지를 통해서 본 10대 여학생 주체형성과 관련한 담론분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56호,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8, 323-374쪽.
- 박인하, 『누가 캔디를 모함했나—박인하의 순정만화 맛있게 읽기』, 살림, 2000.
- \_\_\_\_\_, 『한국 명랑만화 장르의 형성과 발전 연구』, 『애니메이션연구』 제8권 4호, 한국애니메이션학회, 2012, 43-61쪽.
- 박인하·김낙호, 『한국현대만화사 1945~2009』, 두보CMC, 2010.
- 박재동 외, 『한국만화의 선구자들』, 열화당, 1995.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편, 『한국 교육사』, 교육과학사, 1997.
- 손상익, 『한국만화통사 하』, 시공사, 1998.
- 이선옥, 『1960년대 과학주의 담론의 신체화—잡지 『여학생』에 나타난 소녀와 사춘

- 기」, 『여성문학연구』 제4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225-254쪽.
- , 「196, 70년대 잡지 『여학생』 특집 연구—감정의 재배치와 국민 만들기」, 『여성문학연구』 제4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 295-322쪽.
- 임인재, 「1970년대 대중문화 속 '학생' 이미지 구현—학생잡지 및 하이틴영화를 중심으로」, 『현대영화연구』 제32호, 현대영화연구소, 2018, 89-113쪽.

## Abstract

The Discourse on Girls and the Comics in the 1970s Magazine, *Schoolgirl*  
– A Forced Model and the Invented Cheerfulness

Kim, So-Won(Sangji University)

The aim of this essay is to illustrate *Sunjung Manhwa* in the 1970s which has been alienated in comics studies. This essay analyses the articles and the serial comics in *Schoolgirl*, the magazine in the 1970s, and examines the ideal representations of the girls at that time. *Sunjung Manhwa* is really different between the 1960s and 1970s. It cannot be explained on this gap just by analyzing *Sunjung Manhwa* in book form alone. Even though the censorship on comics was the element that has hampered the development of comics as a whole, the slumps of *Sunjung Manhwa* in the 1970s were very excessive compared to other comics genres. This article can gain the answers to the reason of the changes of *Sunjung Manhwa* by studying the magazines which was the main mass media aimed at girls with *Sunjung Manhwa*.

While the articles in magazines show the editing direction and its characteristics, they reflect the values and ideologies at that time. The same is true for the comics in the magazines. Especially, the comics in the magazines was relatively free from the censorship. This essay examined how the articles and the comics in the girls' magazine in the 1970s represented the images of girls at the time by focusing on feature articles and comics in the magazine, *Schoolgirl*. This article explored Um, Hee-Ja's *Blue Zone* and Bang, Young-Jin's *Mini March* among a full-length serial comics in the magazine, *Schoolgirl*. Both *Blue Zone* and *Mini March* reveal the images of an ideal girl that has been emphasized by the articles in *Schoolgirl*. *Blue Zone* draws the appearances of an earnest and obedient daughter, and *Mini March* represents the figures of a cheerful and bright girl. Through this study, it can be recognized that the magazines in the 1970s highly appraised girls who are obedient to a given society and serve to a harmonious family as ideal ones, and it might be guessed that the ideal images of girls that was characterized ceaselessly by the magazines were the standard of the censorship on comics and its creativity and had

also a huge impact on the contents and the expressions of a great deal of works.

The 1970s was the times when its importance has been lost in the history of the comics studies by the censorship on the comics and the monopoly of “Hapdong(합동) publisher.” The limits of expression in terms of censorship were awfully distinct, so its result was few of good works in quality, and there are still many blanks in the study on 1970s’ comics. This study has a meaning which fills up a blank in the comics studies.

(Keywords: comics in the 1970s, girl, *Schoolgirl*, *Sunjung Manhwa*, magazines in the 1970s, comics in the magazines, girl’s magazine, representation of the girls, education for schoolgirls, ideal girl)

논문투고일 : 2021년 8월 31일

심사완료일 : 2021년 10월 1일

수정완료일 : 2021년 10월 11일

게재확정일 : 2021년 10월 14일